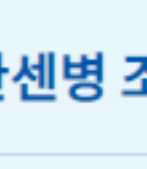




# 감염병 뉴스레터

E-NEWS LETTER

No.8 ISSUE 01  
2023.01.27



## 감염병 주요 뉴스

### 감염병 핵심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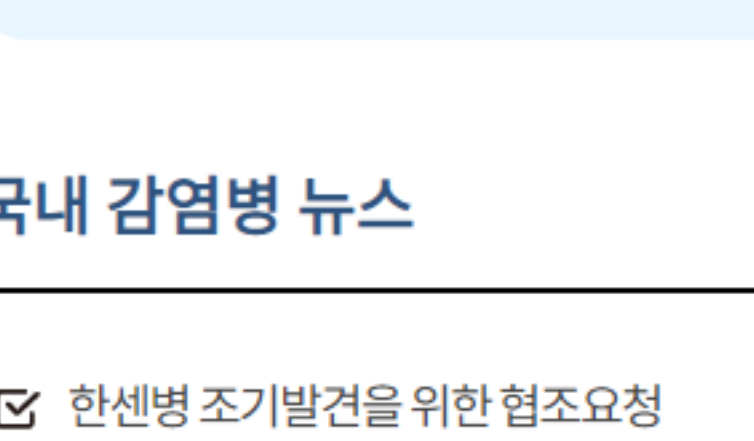
#### 한센병 조기발견을 위한 협조요청

최근 10년간 한센병 신원자 중 외국인 한센병 신원자 비중 42.9%로 피부병변, 발적, 구진, 결절 등 한센병 의심 증상 지속시 적극적인 한센병 검사를 당부하였다. 특히, 한센병 우선순위 국가 출신 외국인 환자의 경우 세심한 관찰과 진료가 필요하다.



#### 아이티 콜레라 발생, 치명률 3.0%

2023년 1월 3일 기준 아이티 보건부에서는 포르토프랭스 지역에서의 콜레라 의심환자 20,262건, 이 중 16,019건(79%)의 입원환자가 발생하였다. 이 중 280건의 의료기관 사망과 177건의 지역사회 사망을 보고하였고 치명률(moving 14-days CFR)은 3.0%였다. 콜레라는 최근 서아프리카, 아프리카 동부 및 남부, 중동의 일부 지역, 동남아시아에서 계속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중국 코로나19 발생 동향

중국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완화한 이후 단기간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한 가운데 지금까지 중국의 현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역학적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 대도시에서 유행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는 주요 언론, 연구진과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나,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기간에 대규모 인구가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며 유행이 장기간 지속가능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한다.

## 국내 감염병 뉴스

☑ 한센병 조기발견을 위한 협조요청

☑ 3년 만의 해외 유입 홍역 환자 발생

☑ 2가백신, 변이바이러스(BN.1, BQ.1, XBB.1 등)에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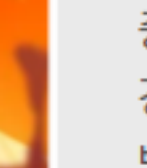
## 해외 감염병 뉴스

☑ [콜레라/아이티] 아이티 콜레라 발생, 치명률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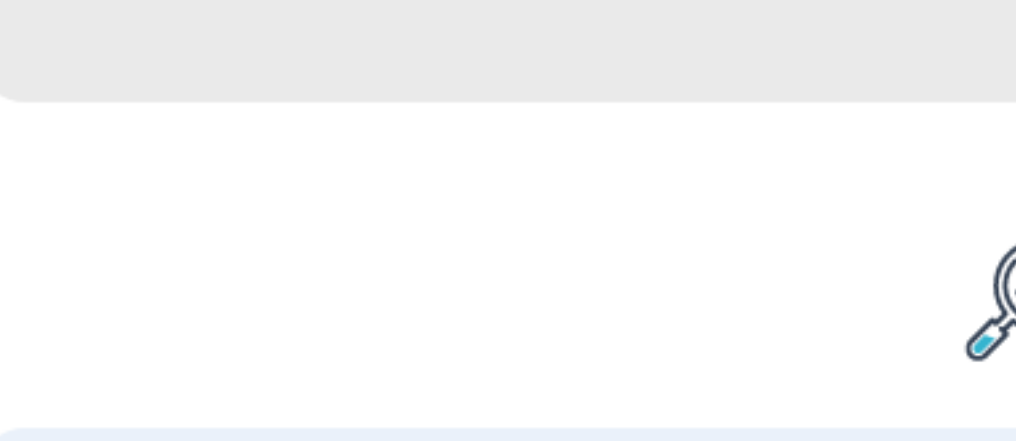
☑ [니파바이러스/방글라데시] 생대추아자 음료 섭취 후 사망 1명

☑ [덴기열/동남아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발생 증가

☑ [성홍열, 침습성 그룹A 연쇄상구균 감염증/영국] 영국, 발생 보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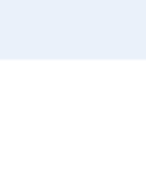


## 클릭 핫 이슈



#### 중국 코로나19 발생 동향

중국을 2022년 11월, 기존 '감염예방'을 목적으로 방역조치를 해오던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에서 '건강보호 및 중증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방역으로의 전환을 선언하였다.



## 감염병 포커스

### 마스크의 자율 착용 권고에 즈음하여...

○ 써야 한다 × 안 써도 된다 △ 운영자의 결정

지하철역 또는 기차역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쇼핑몰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시설	직장	카페, 식당
X	O	X	O	X	△	△
지하철이나 기차 안, 즉 '대중교통 수단 내부'에서만 쓰면 된다	여객자동차법상의 운송사업 차량은 모두 의무 착용 유지 대상이다	쇼핑몰은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지만, 내부의 의료기관은 의무 착용 적용 대상이다		교육부 '단, 유증상자와 접촉하거나 과밀 환경인 경우 착용 적극 권고한다'		'각 기업과 시설의 결정에 달렸다. 관련 정부 지침은 없다'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실명 중앙, 출처: 동아일보 2023년 1월 21일자 기사

그림 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Q&A 링크보기 ▶

2023년 1월 30일부터 마스크 실내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사라지고 자율 권고로 바뀐다. 질병관리청에서 여러 번 강조하였지만 실내 마스크의 착용의 법적의무가 해제된 것이지 마스크의 질병차단 효과는 계속 있으므로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계속 권고하고 있다. 그림 1은 1월 30일부터 마스크이 착용의무가 지속되는 장소와 의무가 해제되는 장소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020년 코로나19의 유행이 시작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마스크의 착용은 일상의 한 부분이었다. 유행 초기 마스크 부족으로 약국에서 마스크를 DUR로 점검하면서 배급형태로 구매하기도 하였다. 마스크의 착용이 비말과 에어로졸로 전파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는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하여서 확인되었다. 그림 2는 미국 CDC 홈페이지에 있는 마스크의 효과와 관련한 내용이다. 천마스크의 감염예방효과는 56%, 수술용 마스크는 66%, N95 또는 KF94 마스크는 83%의 예방효과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감염재생산지수(R)를 감소시켜 유행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마스크의 착용 수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유행상황과 중증 환자의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환자의 발생과 고위험군의 중증화 위험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의 권고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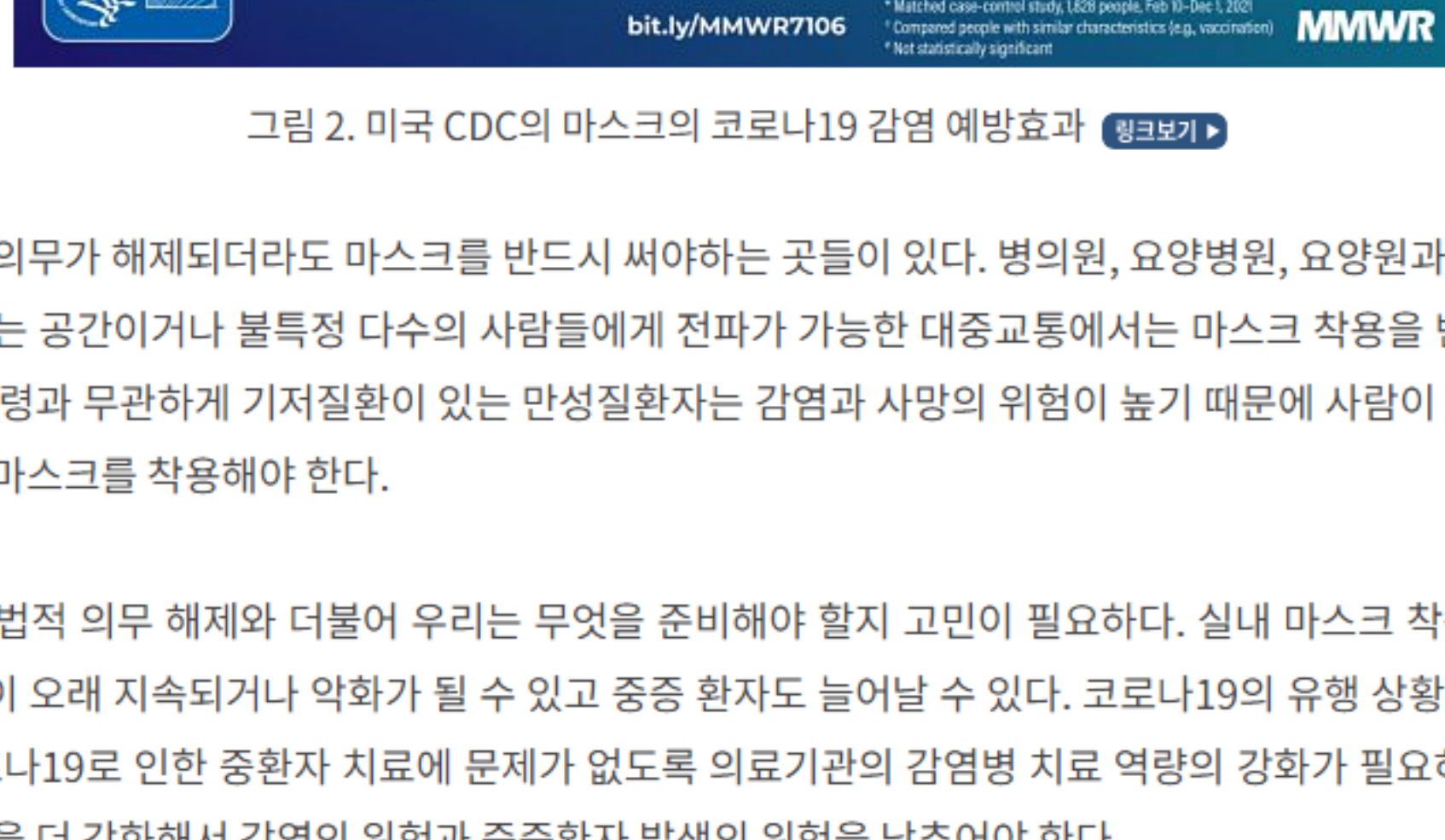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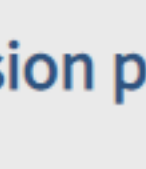
그림 2. 미국 CDC의 마스크의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 링크보기 ▶

마스크의 법적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하는 곳들이 있다.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과 같이 고위험군이 주로 거주하는 공간이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가 가능한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 60세 이상과 연령과 무관하게 기저질환이 있는 만성질환자는 감염과 사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 공간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의 법적 의무 해제로 더불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실내 마스크 착용 준수가 떨어질 경우 유행상황이 오래 지속되거나 악화가 될 수 있고 중증 환자도 늘어날 수 있다.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이 연중 일상화될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의료기관의 감염병 치료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을 더 강화해서 감염의 위험과 중증환자 발생의 위험을 낮추어야 한다.

코로나19가 계속 유행하고 있지만 일상으로의 회복은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유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대가는 우리가 스스로 마련해야 하며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 대가는 의료역량의 확충과 백신 접종뿐이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 최신 논문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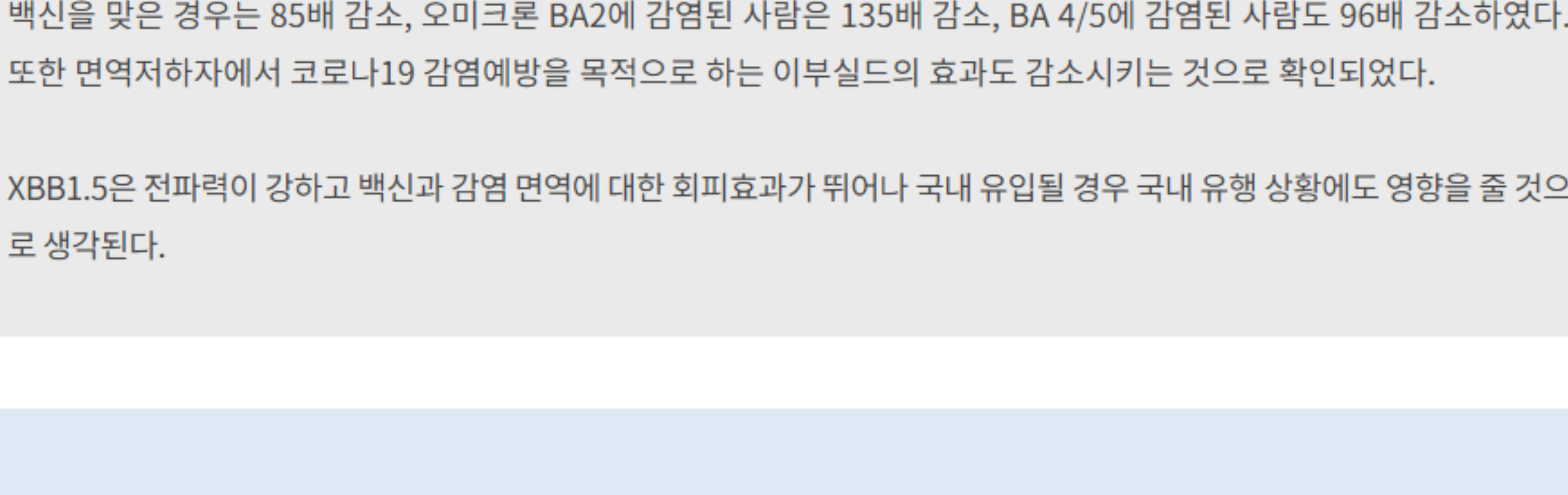
### Alarming antibody evasion properties of rising SARS-CoV-2 BQ and XBB subvariants

논문 원본 보러가기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최근 오미크론의 하위변이가 계속 발생하여 여러 국가의 유행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2022년 12월 XBB1.5가 유행을 시작하여 약 한달만에 전체 확진자의 40% 이상이 XBB1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되었다.

백신을 접종한 환자나 감염되었던 환자에서 XBB 변이가 중화항체를 얼마나 회피하는지에 대한 논문이 발표 되었다.



그래프의 순서대로 3회의 기준백신 접종자는 중화항체가 71배 감소, 4회 접종자는 155배 감소, 3회 접종 후 2가 개량백신을 맞은 경우는 85배 감소, 오미크론 BA2에 감염된 사람은 135배 감소, BA 4/5에 감염된 사람도 96배 감소하였다. 또한 면역저하자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이부실드의 효과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XBB1.5는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과 감염 면역에 대한 회피효과가 뛰어나 국내 유입될 경우 국내 유행 상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 감염병 퀴즈

2020년 1월 1일부터 질병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 시기 등을 고려하여 86종의 감염병을 제1급~제4급 감염병으로 나누는 법정감염병의 '급(級)'체계 개편이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중 감염병 분류 및 신고시기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 01 에볼라바이러스병 / 1급 / 즉시 신고
- 02 A형 간염 / 2급 / 24시간 이내
- 0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2급 / 24시간 이내
- 04 C형 간염 / 3급 / 7일 이내
- 05 수족구병 / 4급 / 7일 이내

2023.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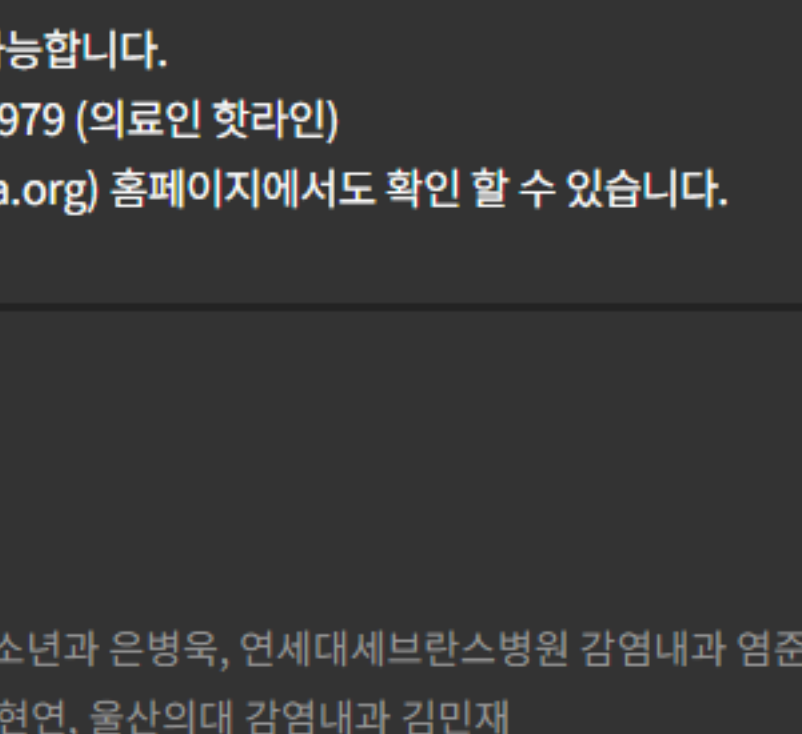
# 전국 17개 시도 7,528명 대상 코로나19 항체양성률 2차 조사 결과 발표

### <조사결과 개요>

- 대 상** 1차 조사 참여자(9,945명) 중 7,528명
- 기 간** '22.12.7.(수)~'22.12.22.(목)
- 검사방법** 2차 조사 참여 희망자(7,528명) 대상 설문조사, 채혈 및 코로나19 항체검사
- 결 과** ① 전체 항체양성률(자연감염+백신접종): 98.6%  
② 자연감염 항체양성률: 70%(1차 조사 결과 대비 12.8% 증가)  
③ 미확진 감염자 확인: 같은 기간 확진자 누계발생률 51.5%( '22.11.26.) 대비 18.5%p 높게 나타나 미확진 감염자 다수 존재 확인

## 질병관리청 콜센터

감염병 신고 기준과 절차 등  
질병정보가 궁금할때 1339로  
문의바랍니다.



본 메일은 발신 전용으로 회신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 043-719-7979 (의료인 핫라인)  
또한, 본 내용은 질병관리청(kdca.go.kr) 및 대한의사협회(www.kma.org)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편지위임

#### 대한의사협회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노원원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은병옥,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염준선,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김진웅, 대전 이양재단과 이양덕, 방배GF내과의원 이영목, 아산진내과 정원현, 울산대 감염내과 김민재

#### 질병관리청

위기분석담당관 탁상우, 역학조사관 김연주/김희미/김희경/류보영, 보건연구관 김인호/박재선/송정숙/이지아

